

육류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 평가

강중헌* · 정항진
순천대학교 조리과학과

Measur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Meat and Consumption Behavior

Jong-Heon Kang*, Hang-Jin Jeong

Department of Cooking Scienc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belief, ambivalence, subjective norm, attitude and meat consumption behavior. A total of 318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employed to assess the causal effects of constructs. The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structural analysis results for the data also indicated excellent model fit.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belief, ambivalence, and subjective norm on attitud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belief, subjective norm and attitude on meat consump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s of attitude on inten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had been expected, intention exerted a significant effect on meat consumption. Moreover, environmental belief and ambivalence exerte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meat consumption through attitude. Subjective norm exert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meat consumption through attitude and intention. Subjective norm also exert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intention through attitude. In developing and testing conceptual models which integrate the relationship among behavioral belief, attitude variable, behavioral intention and meat consumption, this study may approach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relationship among meat consumption behavior-related variables.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relationship among meat consumption behavior-related variables can improve the practical or managerial diagnosis of the problem and opportunities for different marketing strategies including meat production and meat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communication.

Key Words : Environmental belief, ambivalence, subjective norm, attitude toward meat, consumption behavior

1. 서 론

신념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신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태도가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Sapp 1991; Lea & Worsley 2001), 신념은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신념도 그 음식에 대한 태도와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육류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육류 소비의 중요한 결정요인들이 된다(Richardson 등 1993; Worsley & Skrzypiec 1998; Lea & Worsley 2001; Lea & Worsley 2002). 육류에 대한 신념들 중 동물의 배설물이 강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믿는 육류 생산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적 신념은 육류 섭취량을 줄일 수도 있고, 전혀 육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Povey 등(2001)의 연구에서도 육류 기피

자들이나 완전채식주의자들은 육류 위주의 식사를 기피하는 신념들 중 하나가 환경적 신념이었다.

또한 육류 소비는 소비자들이 육류에 대한 높은 양면가치를 가지고 있을수록 감소하게 된다. 육류에 대한 양면가치란 사람들이 육류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갖는 혼합된 감정(mixed feelings)을 말하는 것으로(Berndsen & Pligt 2004), 높은 양면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모두 갖게 된다(Armitage & Conner 2000).

지금까지 사람들의 양면가치는 태도(Jonas 등 1997),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 그리고 태도와 행동의 관계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Berndsen & Pligt 2004). 선행연구들은 태도의 일시적인 부동성(Bargh 등 1992), 태도의 유연성(Bassili 1996), 정보처리(Bargh 등 1992) 등의 이슈들에 초점을 두었다. 선행연구들은 양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Corresponding author: Jong Heon Kang, Department of Cooking Scienc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413 Jungangno, Suncheon, Jeonnam 540-742, Korea
Tel: 82-61-750-3694 Fax: 82-61-750-3694 E-mail: astckjh@hanmail.net

사람들이 덜 부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Berndsen & Pligt 2004). 특히 육류에 대한 양면가치에 관한 연구로 Sparks 등(2001)의 연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양면가치가 음식 선택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양면가치의 조절효과는 갈등동기(conflicting motives)가 원인으로 행동의도의 예측가능성을 줄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Berndsen & Pligt 2004).

육류 소비에 관한 이전 연구로 Kenyon & Barker(1998)는 육류 섭취에 미치는 맛과 건강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Lea & Worsley(2001)는 육류 섭취에 미치는 가족과 친구의 영향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Santos & Booth(1996)는 육류 섭취에 미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의 영향, 동물을 죽이는 것에 대한 도덕적 관심의 영향과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Beardsworth & Keil(1991)은 육류 섭취에 미치는 환경 문제와 잔인성에 대한 신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Berndsen & Pligt(2004)는 육류 섭취에 대한 행동적 신념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행동적 신념, 양면가치, 주관적 규범과 태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Kang & Jeong(2007)은 감정적 신념, 환경적 신념, 주관적 규범과 태도가 육류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 주관적 규범, 태도, 소비, 소비의도 등의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를 분석했던 연구들은 없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 심리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자들의 태도나 소비에 미치는 환경적 신념의 영향과 소비에 미치는 양면가치, 주관적 규범과 태도의 영향 이외에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와 주관적 규범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태도가 매개하는 매개효과, 주관적 규범이 소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태도가 매개하는 매개효과, 그리고 태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의도가 매개하는 매개효과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개발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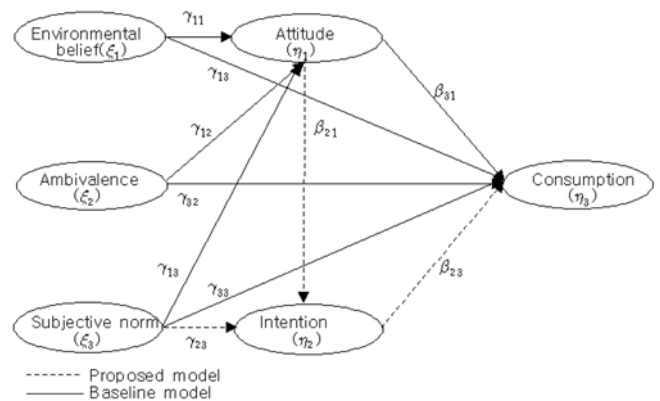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50부의 설문지를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들에게 설문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자는 10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고, 설문 조사 시기는 2007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였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350명이었으나 부정확하게 응답된 설문지가 32부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18(90.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의 설문지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부분에서 성별은 명목척도로 측정되었으나, 연령, 키와 몸무게는 비율척도로 측정되었다.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 주관적 규범, 태도와 육류 소비행동을 알아내기 위한 부분에서 측정문항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1점을 선택하고, 아주 동의한다면 5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환경적 신념, 주관적 규범, 태도와 육류 소비행동의 측정문항들은 Kang & Jeong(200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이었다.

환경적 신념이란 동물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강을 오염시키는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도라고 정의되며(Sutherland 등 1998; Berndsen & Pligt 2004),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설문문항들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양면가치란 어떤 대상, 이슈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의되며(Priester & Petty 1996; Berndsen & Pligt 2004),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설문문항들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이란 Fishbein & Ajzen(1975)의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 하나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못하게 하도록 하는 지각된 사회 압력이라고 정의되며(Berndsen & Pligt 2004),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태도란 육류 섭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도라고 정의되며(Berndsen & Pligt 2004),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설문문항들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육류 소비행동으로 소비의도는 Berndsen & Pligt(2004)의 연구에서 구분한 것처럼 현재보다 덜 소비, 현재와 같이 소비, 현재보다 더 소비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된 개념으로 육류를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소비는 Mahon 등(2006)과 Olsen 등(2005)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2개월에 1번 이하, 1개월에 1-2번, 1개월에 3-4번, 1주일에 1-3번, 1주일에 4-7번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된 개념으로 육류 섭취 빈도를 의미한다.



<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Olsen SO 2003; George 2004; Hansen 등 2004; Olsen 등 2005; Lam & Hsu 2006; Kang & Jeong 2007)에서 사용된 모형을 참고하여 <Figure 1>과 같은 6개의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설정되었다.

10개의 경로들 중에서 환경적 신념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은 Fishbein & Ajzen(1975)와 Ajzen(1985)의 연구들, 환경적 신념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Povey 등(2001)의 연구, 그리고 나머지 경로들은 Berndsen & Pligt(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과 소비의도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한한 기본모형과 제한하지 않은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어떤 모형이 더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인지를 파악하고, 적합도가 우수한 모형에서 구성개념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소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한한 기본모형에 비해 제한하지 않은 제안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을 것이다.

가설 2: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와 주관적 규범은 태도, 소비의도와 소비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모형에 사용될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확인요인분석, 평균 분산 추출값(AVE), 혼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빈도분석은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Table 1> Respondent's consump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Mean±SD	t/F	Sig.
Gender	Male	3.325±1.174	2.730	0.007**
	Female	2.987±1.028		
Age	29 yrs or less	3.466±0.994 ^a	4.845	0.003**
	30-39 yrs	3.181±1.144 ^a		
	40-49 yrs	3.115±1.128 ^{ab}		
	50 yrs or more	2.813±1.123 ^b		
Height	169 cm or less	3.023±1.106 ^b	5.509	0.004**
	170-179 cm	3.217±1.082 ^b		
	180 cm or more	3.769±1.142 ^a		
Weight	49 kg or less	2.917±0.996 ^b	2.524	0.029*
	50-59 kg	2.980±1.069 ^b		
	60-69 kg	3.147±1.249 ^b		
	70-79 kg	3.289±1.088 ^{ab}		
	80-89 kg	3.593±0.971 ^{ab}		
	90 kg or more	4.000±1.225 ^a		

*p<0.05, **p<0.01.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확인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특정 경로를 제한한 기본모형과 제한하지 않은 제안모형의 적합도 비교와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 분석은 LISREL 8.7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able 1>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남성(3,325)은 여성(2,198)보다 쇠고기 섭취빈도가 높았다. 연령에서 20대 이하와 30대는 50대 이상 응답자들보다 쇠고기 섭취빈도가 높았다. 키에서 169 cm 이하와 170 cm 응답자들은 180 cm 이상 응답자들보다 쇠고기 섭취빈도가 낮았다. 몸무게에서 90 kg 이상 응답자들은 69 kg 이하 응답자들보다 쇠고기

<Table 2> Loadings, composite reliability and AVE of 3 factors used in the model

Constructs and indicators	Mean±SD ¹⁾	EFA results		CFA results		Composite reliability
		Loadings	Coef.	t		
Environmental belief						0.579
Production of meat is harmless for the environment.	2.651±1.121	0.777	0.635	8.611***		
Nitrates from manure attacks the quality of fish stock.	3.381±1.040	0.711	0.533	7.252***		
Production of meat causes manure problems.	3.252±1.120	0.692	0.511	7.527***		
Ambivalence						0.838
Towards the issue of eating meat I feel no conflict at all.	3.541±0.971	0.889	0.847	16.694***		
Towards the issue of eating meat I have completely clear reactions.	3.613±0.969	0.839	0.804	15.661***		
Towards the issue of eating meat I feel no indecision at all.	3.475±0.991	0.855	0.734	14.043***		
Attitude						0.868
I am favorable to eating meat.	3.478±0.952	0.827	0.786	15.925***		
I am positive about eating meat.	3.409±0.879	0.802	0.784	15.864***		
I am for (against) eating meat.	3.484±0.912	0.798	0.765	15.305***		
I feel that eating meat is good.	3.456±0.893	0.790	0.737	14.534***		
I feel that eating meat is pleasant.	3.438±0.910	0.784	0.696	13.452***		

***p<0.001, t>3.291.

¹⁾Likert 5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3=neither agree nor disagree, 5=strongly agree.

<Table 3> Correlation and \sqrt{AVE} of 6 constructs used in the model

	Environmental belief	Ambivalence	Subjective norm	Attitude	Intention	Consumption
Environmental belief	0.562					
Ambivalence	0.094 (1.186)	0.796				
Subjective norm	-0.033 (-0.457)	0.108 (1.791)	1.000			
Attitude	-0.312*** (-4.228)	0.232*** (3.719)	0.281*** (5.039)	0.754		
Intention	-0.139 (-1.920)	0.059 (0.973)	0.149** (2.721)	0.217*** (3.767)	1.000	
Consumption	-0.345*** (-5.115)	0.144* (2.407)	0.255*** (4.859)	0.432*** (8.675)	0.023 (0.401)	1.000

*p<0.05, t>1.960; **p<0.01, t>2.576; ***p<0.001, t>3.291. ϕ (t value). \sqrt{AVE} on the diagonal.

섭취빈도가 높았다.

2.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구조방정식모형에 사용된 3개 요인들의 요인적재량, 혼합 신뢰도와 평균 분산 추출값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 태도 등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측정모형에서 개별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환경적 신념과 3개 측정도구들 간 경로계수는 0.511부터 0.635까지로 나타났다. 양면가치와 3개 측정도구들 간 경로계수는 0.734부터 0.847까지로 나타났다. 태도와 5개 측정도구들 간 경로계수는 0.696부터 0.786까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구성개념들과 측정도구들 간 경로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p<0.001) 때문에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환경적 신념과 태도의 결과는 Kang & Jeong(2007)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사용된 6개 요인들의 상관관계와 평균 분산 추출값 제곱근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서 제시되었다. 태도는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 주관적 규범 등의 구성개념과의 상관관계에서 각각 -0.312, 0.232, 0.281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비는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 주관적 규범 등의 구성개념과의 상관관계에서 각각 -0.345, 0.144, 0.255, 0.432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비의도는 주관적 규범, 태도 등의 구성개념과의 상관관계에서 각각 0.149, 0.217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소비와의 상관관계에서 각각 0.023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상관관계 계수들은 평균 분산 추출값 제곱근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별타당성도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적 신념, 주관적 규범, 태도, 소비의도와 소비의 상관관계 계수들은 Kang & Jeong (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평균 분산 추출값 제곱근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구성개념들의 혼합신뢰도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신뢰도는 환경적 신념이 0.579, 양면가치가 0.838, 태도가 0.868로 나타났다. 모든 구성개념들의 신뢰도는 일반

적인 추천 기준(0.7)보다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Nunnally(1967)가 추천한 기준(0.5)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Andreassen & Lindestad 1998; Gilbert 등 2004). 이 결과들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성개념들이 충분한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 신념과 태도의 신뢰도는 Kang & Jeong(2007)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였다.

<Table 4>에 의하면, 확인요인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카이 제곱의 값이 125.843(p<0.001)이었고, 기초 적합지수(GFI), 비교 적합지수(CFI), 상대 비중심지수(RNI)와 비표준 적합지수(NNFI)의 추정치들은 각각 0.946, 0.970, 0.970, 0.957로 기준(0.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사 평균제곱 잔차제곱근(RMSEA)은 0.055로 기준(0.08)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확인요인분석에 사용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3.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분석

6개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 주관적 규범, 태도, 소비, 소비의도 등의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2개 모형을 개발하여 적합도를 비교하여 어떠한 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Table 4> Fit measur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6 constructs

Fit measures	CFA results		Proposed model	Baseline model
	Attitude	Total		
χ^2	28.033	125.843	131.872	152.049
Df	5	65	70	73
Probability	0.000	0.000	0.000	0.000
$\Delta\chi^2 (df)$			20.177(3)***	
GFI	0.966	0.946	0.944	0.936
AGFI	0.897	0.913	0.916	0.909
RMSEA	0.121	0.055	0.053	0.058
RMR	0.028	0.035	0.042	0.047
CFI	0.968	0.970	0.969	0.961
RNI	0.968	0.970	0.969	0.961
NNFI	0.935	0.957	0.960	0.951

***p<0.001, $\Delta\chi^2 (3)$ >16.27.

<Table 5> Path coefficient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6 constructs

Path	Coefficient	t	Error	Squared R
Attitude				
Attitude ← Environmental belief	-0.309	-3.821***	0.382	0.218
Attitude ← Ambivalence	0.188	3.578***		
Attitude ← Subjective norm	0.180	4.465***		
Intention				
Intention ← Subjective norm	0.054	1.674	0.300	0.055
Intention ← Attitude	0.155	3.114**		
Consumption				
Consumption ← Environmental belief	-0.404	-3.367***	0.900	0.274
Consumption ← Ambivalence	0.100	1.324		
Consumption ← Subjective norm	0.194	3.316***		
Consumption ← Attitude	0.485	4.523***		
Consumption ← Intention	-0.201	-2.002*		

*p<0.05, t>1.960; **p<0.01, t>2.576; ***p<0.001, t>3.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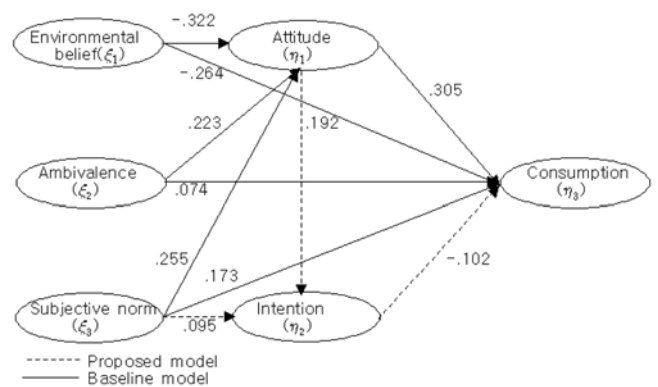
<Table 4>에 의하면, 주관적 규범과 태도가 소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과 소비의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한했던 기본모형의 카이제곱 값은 152.049(df=73, p<0.001)이었다. 카이제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하였지만, 기초 적합지수는 0.936, 근사평균제곱 잔차제곱근은 0.058, 비교 적합지수는 0.961, 상대 비중심지수는 0.961, 비표준 적합지수는 0.951로, 모든 적합도 지수는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과 태도가 소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과 소비의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한하지 않은 제안모형의 카이제곱 값은 131.872(df=70, p<0.001)였다. 카이제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기초 적합지수는 0.944, 근사평균제곱 잔차제곱근은 0.053, 비교 적합지수는 0.969, 상대 비중심지수는 0.969, 비표준 적합지수는 0.960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는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모형은 기본모형의 카이제곱 값과 20.177의 차이를 보였고, 기준치(16.27)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들에서도 제안모형이 기본모형보다 우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떠한 경로도 제한하지 않은 제안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4. 구성개념들의 인과관계 분석

6개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경로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들은 <Table 5>와 <Figure 2>에서 제시되었다. 환경적 신념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309였고, t 값은 -3.82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따라서 육류 생산이 환경에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육류 섭취에 대한 태도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ang & Jeong(2007)의



<Figure 2> Standardized effect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6 constructs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양면가치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188이었고, t 값은 3.57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육류 섭취 이슈에 대해 갈등해 본 경우가 없었거나, 육류 섭취 이슈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없었거나, 육류 섭취 이슈에 대해 불분명한 반응을 보인 경우가 없을수록, 육류 섭취에 대한 태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180이었고, t 값은 4.46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따라서 소비자 자신의 육류 섭취를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수록, 육류 섭취에 대한 태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ang & Jeong(2007)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또한 이 결과는 태도와 행동의 기대가치 모형인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 Ajzen 1975)과 계획적 행동이론(Ajzen 1985)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들이었다.

소비에 환경적 신념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404이었고, t 값은 -3.36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1$). 따라서 육류 생산이 환경에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육류 소비빈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Povey 등(2001)과 Kang & Jeong(2007)의 연구들과 같은 결과였다.

양면가치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100이었고, t 값은 1.32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주관적 규범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194였고, t 값은 3.31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따라서 소비자 자신의 육류 섭취를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수록, 육류 소비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Berndsen & Pligt(2004)와 Kang & Jeong(2007)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태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485였고, t 값은 4.52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따라서 소비자들이 육류 섭취를 좋게 생각할수록, 육류 소비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Berndsen & Pligt(2004)와 Kang & Jeong(2007)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주관적 규범이 소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054였고, t 값은 1.67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태도가 소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155였고, t 값은 3.11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따라서 소비자들이 육류 섭취를 좋게 생각할수록, 육류를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ang & Jeong(2007)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환경적 신념과의 경로계수, 양면가치와의 경로계수, 주관적 규범과의 경로계수, 그리고 잔차(0.382)의 합으로 계산되는 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21.8%였다. 환경적 신념과의 경로계수, 양면가치와의 경로계수, 주관적 규범과의 경로계수, 태도와의 경로계수, 소비의도와와의 경로계수, 그리고 잔차(0.900)의 합으로 계산되는 소비에 대한 설명력은 27.4%였다. 주관적 규범과의 경로계수, 태도와의 경로계수, 그리고 잔차(0.300)의 합으로 계산되는 소비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5.5%였다.

6개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개념들의 인과효과에 대해 분석한 <Table 6>에 의하면, 소비의도는 태도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았고,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태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에 미치는 태도의 영향을 매개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태도와 소비의도의 매개변수로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접효과는 환경적 신념과 양면가치가 태도를 통하여 소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경로들(-0.092, 0.063), 주관적 규범이 태도와 소비의도를 통하여 소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경로(0.063), 그리고 주관적 규범이 태도를 통하여 소비의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경로(0.04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와 주관적 규범이 태도에 직접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태도를 통하여 소비에 간접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의도는 태도를 통하여 주관적 규범에 의해 간접효과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적 신념과 주관적 규범의 간접효과는 Kang & Jeong(2007)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태도에 미치는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와 주관적 규범의 영향들, 소비에 미치는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 주관적 규범, 태도와 소비의도의 영향들, 소비의도에 미치는 주관적 규범과 태도의 영향들, 환경적 신념과 양면가치가 태도를 통하여 소비에 미치는 간접효과들, 주관적 규범이 태도와 소비의도를 통하여 소비에 미치는 간접효과, 그리고 주관적 규범이 태도를 통하여 소비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개발하였고, 318명의 응답자들로부터 설문을 조사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확인요인분석, 신뢰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에 의해서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와 태도는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Table 6> Total and indirect effect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6 constructs

Path	Covariate	Total	Indirect
Attitude ← Environmental belief	-0.322	-0.322	0
Attitude ← Ambivalence	0.223	0.223	0
Attitude ← Subjective norm	0.255	0.255	0
Intention ← Attitude	0.217	0.192	0
Consumption ← Intention	0.009	-0.102	0
Intention ← Attitude ← Subjective norm	0.144	0.144	0.049(2.600)**
Consumption ← Attitude ← Environmental belief	-0.356	-0.356	-0.092(3.200)**
Consumption ← Attitude ← Ambivalence	0.138	0.138	0.063(2.825)**
Consumption ← Attitude/Intention ← Subjective norm	0.236	0.236	0.063(2.624)**
Consumption ← Intention ← Attitude	0.428	0.285	-0.020(1.643)

** $p < 0.01$, $t > 2.576$. () t value.

입증되었다.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 주관적 규범, 태도, 소비, 소비의도 등의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주관적 규범과 태도가 소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과 소비의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한하지 않았던 제안모형은 이 경로들을 제한했던 기본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한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더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는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해 분석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태도는 환경적 신념, 양면가치와 주관적 규범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는 환경적 신념, 주관적 규범, 태도와 소비의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도는 태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적 신념과 양면가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태도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규범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태도와 소비의도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규범이 소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태도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행동적 변수와 태도 변수가 육류 소비 및 소비의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육류 소비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동적 변수, 태도 변수, 소비, 소비의도 등의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향후 육류 소비행동과 관련된 이론을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육류 소비 및 소비의도와 관련된 변수들 간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는 육류 생산자나 판매자가 육류 생산이나 상품 개발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육류 소비와 소비의도와 관련변수들로 행동적 변수와 태도 변수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을 전남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조사대상 음식의 종류를 육류로 한정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적 변수로 환경적 신념 이외의 다른 변수와 태도변수로 양면가치와 육류 섭취에 대한 5가지 태도변수들 이외의 다른 변수들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각적 변수, 도덕적 규범, 지식, 이용가능성, 자원 등의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들이 육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선 이들 변수들을 포함시키거나 이들 변수들로 대체하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ur. in Bernden M, Pligt J. 2004. Ambivalence towards meat. *Appetite*, 42(1):71-78
- Andreassen TW, Lindestad B. 1998. Customer loyalty and complex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9(1):7-23
- Armitage CJ, Conner M. 2000. Attitudinal ambivalence: A test of three key hypothe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1):1421-1432
- Bargh JA, Chaiken S, Govender R, Pratto F. 1992. The generality of the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6):893-912
- Bassili JN. 1996. Meta-judgmental versus operative indexes of psychological attributes: The case of measures of attitude streng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4):637-653
- Beardsworth AD, Keil ET. 1991. Health-related beliefs and dietary practices among vegetarians and vegans: A qualitative study. *Health Education Journal*, 50(1):38-42
- Bernden M, Pligt J. 2004. Ambivalence towards meat. *Appetite*, 42(1):71-78
- Fishbein M, Ajzen J. 1975. Beliefs,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In Bernden M, Pligt J. 2004. Ambivalence towards meat. *Appetite*, 42(1):71-78
- George JF. 2004.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internet purchasing. *Internet Research*, 14(3):198-212
- Gilbert GR, Goode MMH, Moutinho L. 2004. Measuring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fast food industry: a cross-national approach.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18(5):371-383
- Hansen T, Jensen JM, Solgaard HS. 2004. Predicting online grocery buying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24(6):539-550
- Jonas K, Diehl M, Brömer P. 1997. Effects of attitudinal ambivalence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attitude-intention consistenc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2):190-210
- Kang JH, Jeong HJ. 2007.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consumer's affective belief, environmental belief, subjective norm, attitude and meat consumption behavior. *Korean J. Food Culture*, 22(5):582-589
- Kenyon PM, Barker ME. 1998. Attitudes towards meat-eating in vegetarian and non-vegetarian teenage girls in England: An ethnographic approach. *Appetite*, 30(2):185-198
- Lam T, Hsu CHC. 2006.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 of choosing a travel destination. *Tourism Management*, 27(4):589-599
- Lea E, Worsley A. 2001. Influences on meat consumption in Australia. *Appetite*, 36(2):127-36
- Lea E, Worsley A. 2002. The cognitive contexts of beliefs about the healthiness of meat. *Public Health Nutrition*, 5(1):37-45
- Mahon D, Cowan C, McCarthy M. 2006. The role of attitudes, subjective norm, perceived control and habit in the consumption of ready meals and takeaways in Great Britain.

-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7(6):474-481
- Nunnally JC. 1967.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New York.
- In Andreassen TW, Lindestad B. 1998. Customer loyalty and complex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9(1):7-23
- Olsen SO. 2003.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seafood consumptio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4(3):199-209
- Olsen SO, Wilcox J, Olsson U. 2005. Consequences of ambivalence on satisfaction and loyalty. *Psychology & Marketing*, 22(3):247-269
- Povey R, Wellens B, Conner M. 2001. Attitudes towards following meat, vegetarian and vegan diets: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ambivalence. *Appetite*, 37(1):15-26
- Priester JR, Petty RE. 1996. The gradual threshold model of ambivalence: Relat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bases of attitudes to subjective ambiva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431-449
- Richardson NJ, Shepherd R, Elliman NA. 1993. Current attitudes and future influences on meat consumption in the UK. *Appetite*, 21(1):41-51
- Santos MLS, Booth DA. 1996. Influences on meat avoidance among British students. *Appetite*, 27(3):197-205
- Sapp SG. 1991. Impact of nutritional knowledge within an expanded rational expectations model of beef consumption. *J Nutr. Educ.*, 23(5):214-222
- Sparks P, Conner M, James R, Sheperd R, Povey R. 2001. Ambivalence about health-related behaviours: An exploration in the domain of food choice.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53-68
- Sutherland HJS, Da Cunha R, Lockwood GA, Till JE. 1998. What attitudes and beliefs underlie patients' decisions about participating in chemotherapy trials. *Medical Decision Making*, 18(1):61-69
- Worsley A, Skrzypiec G. 1998. Do attitudes predict red meat consumption among young people. *Ecol. Food Nutr.*, 37(2):163-195

(2008년 2월 13일 신규논문접수, 2008년 2월 28일 수정논문접수, 2008년 6월 2일 채택)